

2021년 12월 창간호

BASIC

그림책으로 생명을 살리는 매거진



그림책 서평 세대를 통해 이어지는 미덕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글 : 박혜련

그림책의 세계관 세상을 보여주는 창, 그림책 글 : 현은자

학술논문 그림책의 서사적 배경이 된 '비' 글 : 박락원

그림책으로 하브루타하기 글 : 최은아

이달의 추천그림책 글 : 임해영 <우리 아빠는 흰지팡이 수호천사> 한울림어린이

<안돼, 안돼! 아이스크림> 상상의집

BASIC을 소개합니다

그림책의 주요 독자는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그림책 창작과 번역의 풍요함 속에서 정작 어린이들에게 읽힐 만한 작품들을 찾기 위해서는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비단 그림책 동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갖 매체들이 각종 정보와 볼 것을 쏟아내는 이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도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읽어야 할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골라 줄 수 있는 어른의 안목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거진의 이름을 베이직(Basic)으로 정하였습니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라는 뜻입니다. 이는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Ad Fontes)를 뜻하며 라틴어 성경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ad fontes aquarum)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란 무엇일까요? 2500년전 그리스의 플라톤은 ‘진, 선, 미’를 최고의 가치라고 하였으며 오랫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 개념은 서구 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다른 식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 문화권이 가진 세계관, 즉 세상이 어떤 모습이며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세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을 함축합니다.

훌륭한 교육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 이상입니다. 진, 선, 미의 가치는 훌륭한 성품(character)을 기르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가정과 학교 교육은 얼마나 성품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지요. C.S.루이스의 책 <인간 폐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를 엮은 것인데, 1장 제목은 ‘가슴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현대 교육이 양성하고 있는, 머리(지성)가 가슴(성품)보다 훨씬 비대해진 학생들을 빗댄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과 학교 교육은 어린이의 성품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아 미숙한 어른들만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거진이 지향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에서의 근원은 성품 교육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품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빛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 5: 22-23), 착함, 의로움, 정직(엡 5:9)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덕목은 작품의 문학과 예술성과 함께 베이직 그림책에서 추천하는 도서의 선정과 분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열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는 것이므로 한 작품에서 그려지는 덕목을 한 두가지로 분석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분류를 그저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베이직 매거진 창간호의 메뉴는 그림책 서평, 그림책의 세계관, 최근 발표된 국내외 학술논문,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그림책 읽기, 그림책 하브루타, 이달의 신간 그림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작이니만큼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베이직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은자

표지이미지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작가 : 바버라 쿠니(Barbara Cooney)
글작가 : 글로리아 휴스턴
번역 : 이상희
페이지 : 32 쪽
출판사 : 키위북스
발행일 : 2017-12-10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루시 가족의 이야기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트리』

박혜련 (원천침례교회 교육국)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는 뽕뽕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아 내리게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어둡고 추운 겨울 밤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요? 도심의 커다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 화려한 트리 조명 장식이 가득한 테마파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바로 성탄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짝 차오르게 하는 풍경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그림책은 미국의 산골 작은 마을에서 성탄절을 위해 루시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멋진 크리스마스트리』의 저자 글로리아 휴스턴은 이 책의 배경이 되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애플래치아 산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책에는 산골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 함께했던 이

웃들과 친척들이 책 속 캐릭터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 루스가 이 책의 주인공 루시라고 합니다. 책 속에는 그 마을의 크리스마스 전통도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글로리아 휴스턴의 따뜻한 글은 바버러 쿠니의 일러스트로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바버러 쿠니는 이 작품을 위해 애플래치아 산맥을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을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으며, 탁 트이고 밝은 풍경을 자연의 색채로 그려내어 산골 마을의 정경을 아름답게 재현했습니다.

성탄절을 의미하는 빨간 면지를 지나면, 눈 속에 빨간 리본을 묶은 초록 트리가 보이고, 한 페이지를 더 넘기면 고산지대의 눈부신 설경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파인그로브 마을에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전통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며 한 가족이 대표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을에 드리고, 그 집의 아이가 성탄절 성극에서 천사 역할을 합니다. 올해는 루시 가족의 차례입니다.

루시 가족이 얼마나 성탄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 봄부터 나무를 고르러 갑니다. 사실 성탄 나무를 기증하는 것은 루시 아빠의 일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혼자하지 않고 루시를 그 일에 참여시킵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험한 산에 자라는 전나무를 찾습니다. 루시가 직접 머리끈으로 고른 나무에 묶어 표시해 둡니다. 루시는 아빠와 함께 험한 산을 오르는 동안 용기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후로 루시는 아빠의 말들을 마음에 소중한 품고 진정한 용기를 발휘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름에 아빠는 바다 건너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엄마와 루시는 단 둘이 남겨졌지만, 그림에서 보여주는 모녀의 모습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직접 텃밭을 일구어 먹으며 밝고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루시는 아빠에게 배웠던 용기를 실제 삶으로 어

떻게 살아내는지 엄마를 통해 보았습니다. 루시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엔 아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한테 인형 선물 받게 해주세요.” 엄마는 루시의 기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아빠는 오지 않았지만 루시와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시 가족이 마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루시는 엄마와 함께 엄청난 용기를 발휘하여 깜깜한 밤에 험한 산을 오르고, 마침내 자신의 리본이 묶인 전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날 새벽 루시는 골아 떨어지고, 엄마는 밤새워 자신의 웨딩 드레스로 루시의 천사 옷과 천사 인형을 만듭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엄마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천사 역할을 하는 루시는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

까요? 용기를 심어준 아빠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와 사랑을 보여준 엄마. 루시에게 이 날의 기억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풍랑도 넉넉히 이겨낼 만한 큰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루시가 아니라 훗날 루시의 손녀입니다. 손녀가 할머니 루시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손녀의 가족은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트리를 장식하는데, 맨 꼭대기에 루시 엄마가 만들어준 천사 인형을 올려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 인형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샘이지요. 성탄절 가족 전통 속에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인내와 용기, 섬김과 사랑이 세대와 세대 간을 이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덕목은 어느 날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

다. 루시가 엄마 아빠를 통해 삶에서 배웠고, 또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 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은 독자들의 가정도 세대간에 아름다운 미덕이 전수되는 가족 문화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와 루시는 용수 띠다할 띠개를 끌고 인식을 울려 산마루를 지나갔어요. 그러나 최고로 멋진 빛깔 전나무는 안 보였어요.
 “어제는 밤상 전나무가 피워갈에서 자한다고 설어요, 용감한 사람이나 올라갈 수 있는
 하늘 가까이 정한 바위산에서요.”
 루시 옆에 엄마가 대답했어요.
 “정한 바위산이래면 앞으로 한참 더 올라가야겠구나.”



세상을 보여주는 창, 그림책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은 창(window)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책의 그림은 실물이 아니라 이차원적인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그것의 이름을 부르고 유아가 그 언어와 이미지의 대응 관계를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주변 세상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 비유를 잘 보여주는 두 그림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찰스 키핑 글, 그림의 <창 너머>라

는 작품과 아라이 료지 글, 그림의 <아침에 창문을 열면>입니다. 우선 <창 너머>를 살펴볼수록 하지요. 앞뒤 표지를 펼치면 레이스 커튼 사이의 창을 통해 얼굴을 반쯤 내민 소년이 크게 뜬 오른쪽 눈으로 독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지의 전면(全面)은 흰색 레이스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고, 표제지에서는 표지에 등장했던 큰 눈의 소년이 방 왼편에 놓인 의자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오전의 햇살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있는 가구들과 사물의 윤곽은 흐릿합니다.



본문 첫 장면에서 서술자는 이 소년의 이름이 '제이콥'이며 그가 이층 거실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 길이 제이콥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에게는 이 길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창 오른쪽 벽에는 해군 군복을 입은 남자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 인물은 아마도 해군에 복무하던 그의 아버지를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튼 사이로 드러난 소년의 이마 위에 맞은편 교회 건물 위의 십자가 그림자가 뚜렷하게 비칩니다. 글은 이 교회에서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이콥은 이 창문을 통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과 슬픈 시간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 오른쪽 장면에서는 더 많이 열린 커튼 사이로 교회 건물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이후부터 그림 이미지는 제이콥이 커튼을 열어 젖힌 만큼의 거리 풍경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푸르고 붉은 색조로 그려진 거리의 풍경은 음울하게 느껴집니다.

교회와 꼬부랑할머니가 사는 집의 문, 양조장, 알프네 과자 가게 다음에 소년은 집 밖으로 나온 꼬부랑 할머니와 그의 비쩍 마른 개, 청소부 위레트씨, 양조장 짐마차, 제이콥과 동년배인듯

한 소년인 조지가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제이콥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곤 하는 조지를 싫어하지만, 알프네 과자 가게로 들어가는 그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마리의 흰색 비둘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양조장을 뛰쳐나온 말들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마부와 양조장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그 말들을 쫓아가고 위레트씨와 쭈그렁 할머니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긴박한 사건들을 커튼 사이로 훑쳐 보면서 소년은 자신은 이 층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안도합니다. 조금 후 마부가 말들을 제어하여 돌아오지만 쭈그렁 할머니는 축 늘어진 개를 안고 슬퍼하는 듯이 보이며 안고 있는 개의 몸에는 붉은 상처가 여럿 보입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제이콥 쪽으로 구부러진 등을 보이고 있는 할머니 뒤에서 마부가 두 손을 펴서 할머니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그 뒤에서는 다섯 명의 양조장 사람들이 죄지는 사람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이콥은 “우리 개가 말하고 싸운 걸 거야. 그래 분명히 그랬을 거야.”라고 애써 불안함과 두려움을 숨기려 합니다. 이제 제이콥의 엄마가 차를 훑이려고 이층으로 올라올 시간입니다. 소년

은 유리창에 입김을 후욱 불고는 할머니가 자신의 개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할머니와 개가 함빡 미소짓고 있는 그 그림에서는 눈물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의 분위기는 <창 너머>와는 사뭇 다릅니다. 표지에는 화병에 꽂힌 흰 꽃과 붉은 꽃이 가득하고, 표지지에는 하단에 분홍빛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밝은 빛깔의 커튼이 창에 드리어져 있습니다. 본문 첫 장면에서는 화면을 가득 채운 진초록의 높은 산과 그 산기슭 밑의 붉은 지붕의 작은 집, 그리고 활짝 열려진 창이 보입니다. 그 창을 두 팔을 뻗어 활짝 열고 있는 인물은 그 형체가 너무 작아 주의 깊은 독자가 아니라면 인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시 그림책은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라고 시작되는, 일곱 개의 연(stanza)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이미지에서는 각 연의 내용과 대응되는 풍광들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높은 산과 나무, 차와 사람으로 북적이는 도시, 유유히 흐르는 강과 강에서 뛰노는 물고기,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집 앞 흙길, 구름 위의 발, 푸른빛 바다. 독자들

은 이야기 중간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에 그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인물이 실은 아주 작은 소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녀는 의자 위에서 자기 키보다 훨씬 높은 유리창을 활짝 열고 밖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에는 식탁 위에 소박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는데 식탁 위에 물컵이 두 개 놓인 것을 보아 소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읽고 있는 화자는 바로 이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그려진 다채로운 이미지들은 대부분 소녀의 상상이거나 혹은 소녀의 기억으로 그려진 것이겠지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로 시작된 시의 연은 항상 “나는 (혹은 우리는) 이곳이 좋아요.”로 마무리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곳이 높은 산이던, 마을이던,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던, 시골길이나 유유히 흐르는 강이던, 꽃이 가득한 정원이던, 바다가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창조세계는 그 자체가 소녀에게 기쁨입니다. “바다는 오늘도 저기에 있고 하늘도 역시 저기에 있어요. 그래



서 나는 이곳이 좋아요”.

속삭이는 듯합니다.

소녀는 집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 나무 그늘에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 쪽 마을은 날씨가 맑게 개었나요?”라고 말을 건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소녀가 사는 바닷가 마을과 흰 구름이 둥실 떠 있는 맑은 하늘 그리고 파란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복되는, “창문을 활짝 열어요.”라는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창 너머>와 <아침에 창문을 열며>가 독자에게 보도록 허락하는 세상에는 매우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벌어진 외로운 할머니의 개의 죽음을 그리고 있는 반면, 후자는 다채롭고 약동하는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전자는 닫힌 세상이며 후자는 열린 세상입니다. 그것은 보는 방식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제이콥은 자신이 칩거하고 있는 이층 거실에서 길



개어같은 모양을 필요하는 귀여운 개를 세게 보고 있었습니. 그에 많이 겁이 있을 정도로는 쓰여져 있었습니. 겁이 없는 바지 보아서 있었습니. 그 쓰여는 커리에 후후 웃어 보면 되었습니.



위의 사람들과 사건을 커튼 사이로 내려다 보고 있으며, 독자 또한 그가 벌려 놓은 커튼 사이로 보여지는 세상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창문을 열면>의 소녀의 시야는 산과 들과 도시와 정원과 바다로 확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자에게도 그들의 창문을 열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이 소녀는 제이콥처럼 유리로 만든 창을 통해 밖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을 열고 우주의 공기와 햇빛을 한껏 맛보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와 바닷가의 높은 야자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자연과 하나가 된 이 소녀는 “오늘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나무 그늘이 내 방이에요. 언제나 살랑살랑 바람이 불지요. 역시 나는 이곳이 좋아요.”라고 노래합니다. 제이콥의 세상은 모호함과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이 이름 모를 소녀의 세상은 환희와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린이들이 보고 있는 그림책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과 창의 형태도 똑같이 사각형이라는 점도 함축하는 바가 큼니다. 그림책의 무대에서도 우리의 세상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시공간이 펼쳐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캐릭터가 등장하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펼쳐진 세상은 그림책을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 독자의 마음 어딘가에 새겨져서 언젠가 살아 움직이며 그에게 말을 건넬 것입니다.

C. S. 루이스(1898-1963)는 <문학비평에서의 실험>이라는 책에서 자신은 어렸을 때 베아

트리스 포터의 <피터 래빗 이야기>에 그려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동물들에게 매료되었다고 회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말하는 동물들은 그의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에서 신화적 캐릭터로 구현되어 인간 주인공들과 함께 나니아 너머의 세상을 향해 모험을 떠나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세상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말한,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 했다”라고 응원하고 환대하는 세상이고, C.S.루이스가 말한, 우리 모두가 ‘갈망(longing)’하는 세상입니다. 제이콥이 입김으로 그린, 웃음 짓고 있는 할머니와 개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림책들은 어떤 식으로 어린 생명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만 누구나 마음 깊이 갈망하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림책에 그런 힘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의 서사적 배경이 된 '비'

박락원 (성균관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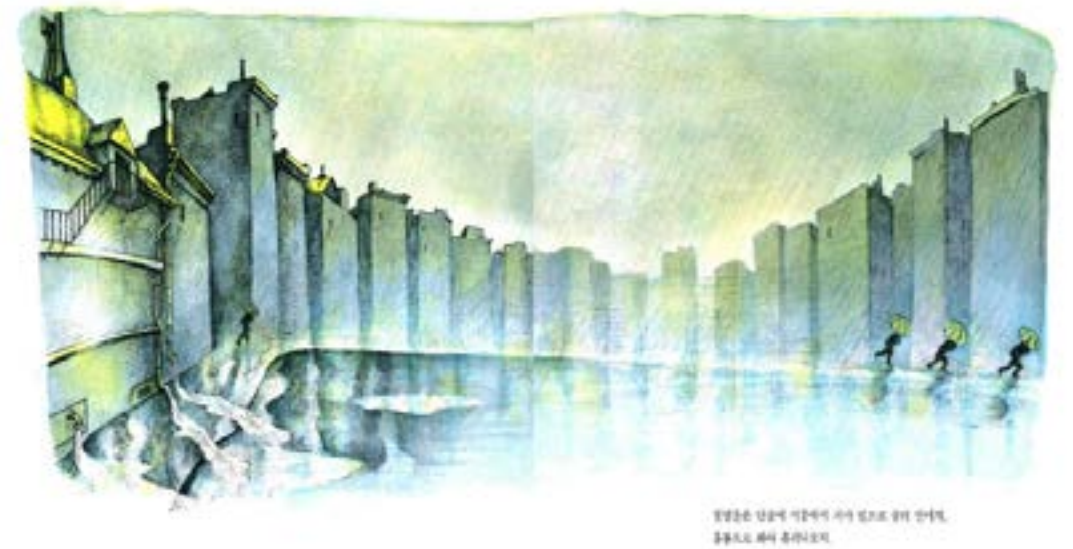


그림 1. 비 오는 날 (Uri Shulevitz, 1969)

인간의 삶에서 ‘비’는 빛과 공기와 더불어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모두 지닌 그림책에서 이러한 ‘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그림책에서 배경(Setting)은 사건이 벌어지는 세계의 상황과 본질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서사적 요소입니다. 그림책 배경으로서의 ‘비’가 나타난 창작과 번역 그림책 97종을 분석한 결과 ‘비’의 서사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플롯 전개 돕기에서 배경으로서의 ‘비’는 플롯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등장인물 또는 독자에게 시공간적으로 변화되는 배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플롯 전개 돕기 는 배경으로서의 ‘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역할로서 무려 61종의 그림책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범주에서는 등장인물이 ‘비’를 만나 자연의 섭리를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 견됩니다. Uri Shulevitz의 『비 오는 날』(1969)에서 등장하는 소녀가 그림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 오는 풍경과 소리를 감상하고 자연의 생명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또, 이 범주에서는 ‘비’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놀이 재료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수많은 창의적인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야 놀자』(유명금, 2017)에서는 엄마와 함께 우산을 쓰고 빗속에서 즐겁게 노는 건이의 모습에서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림 2. 비야 놀자 (유명금, 2017)

아빠와 피자놀이(William Steig, 1998)에서는 ‘비’가 내리자 피트는 밖에서 공놀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엄청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이 비 때문에 오히려 피트는 아빠와 집에서 즐거운 피자놀이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비’는 주인공에게 처음에는 장애물이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험과 가족과의 추억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림 3. 아빠와 피자놀이 (William Steig, 2018)

한편, 『이까짓 거!』(박현주, 2019)에서는 ‘비’가 등장인물이 자아를 발견하거나 성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인공 여자아이는 비가 내리자 슬픔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친구와는 달리 자신은 우산을 가지고 데리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친구 준호와 빗속에서 달리기를 신나게 하면서 ‘비’로 인해 느끼던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해당 범주에서의 등장인물들은 ‘비’로 인해 내면적 갈등을 겪어내면서 내면적 성숙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4. 이까짓 거! (박현주, 2019)



그림 5. 빗방울이 툭툭툭 (한지아, 2010)

두 번째, 장르 드러내기에서는 등장인물이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계로 가는 통로로서 ‘비’가 등장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빗방울이 툭툭툭』(한지아, 2010)에서는 ‘비가 내리자 예린이의 신기한 상상놀이가 시작됩니다. 물고기, 돌고래와 함께 신나게 바다에서 놀던 예린이는 비가 그치자 아쉽게도 상상놀이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비’의 역할은 분위기 자아내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책들은 독자에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비’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와사키 치히로는 『비 오는 날 집 보기』(1968)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여자아이의 외롭고 슬픈 감정을 ‘비’를 배경으로 하면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의 부정적 정서만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난 그림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림 6. 비오는 날의 집보기(이와사키 치히로, 1968)



그림 7. 즐거운 비 (김향수, 서세옥 2006)

『즐거운 비』(김향수, 서세옥, 2006)에서는 아이도 어른도 흥에 겨워 덩실 덩실 비와 어울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먹물 기법을 통해 생동감 있게 ‘비’를 연출하면서 사람들의 즐거운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8 너는 누굴까 (안효림 2017)

네 번째, 배경에 등장하는 ‘비’는 형태나 세기가 변하기도 하고 드라마의 배우처럼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비가 의인화되어 하나의 캐릭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효림의 『너는 누굴까』(2017)에서는 빗방울이 물방울처럼 표현되지 않고 사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고 튕겨 나가는 것을 아이들이 트램펄린에서 뛰어노는 모습처럼 작가가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범주는 그림 속 글씨로 배경에서 ‘비’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는 알파벳이나 한글로 표현되는 ‘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그림처럼 표현되는 ‘타이포그래피’는 『한글 비가 내려요』(김지연, 2014)에서 한글 자음을 비처럼 표현하는 데에서도 등장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지만 그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글 자음이 ‘비’를 연상시키는 파란 계열의 색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하브루타하기

최은아 (마음과 생각 연구소 운영)



그림 9. 한글비가 내려요 (김지연, 2014)

이상으로 그림책 배경으로서의 ‘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림책에서 ‘비’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긍정적으로 그려질 때는 ‘비’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림책에서 만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그려질 때는 그림책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2003)>이나 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처럼 다른예술장르에서 ‘비’가 배경으로 사용될 때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암울하고 쓸쓸한 부정적 정서가 유지됩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그림책에서는 ‘비’로 인해 생긴 위기가 어린 주인공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좋은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귀중한 추억과 뜻깊은 경험을 쌓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책은 아이들의 삶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박락원, 현은자 (2021).
그림책 배경으로서의 ‘비’의 역할.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2(3), 23-50.



박락원
성균관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대학에서 날씨를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아동문학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날씨가 그림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재 3살 아들을 키우며 동화 작가와 그림책 서평 에세이 작가의 꿈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에서 『나는야 임진각 독수리』 동화로 맥심상을 수상하였고, 올해 <어린이문학교육연구>에 ‘그림책 배경으로서의 ‘비’의 역할’을 게재하였습니다.

1. 왜 하브루타인가요?

우리가 받은 대부분의 교육은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암기식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4차산업 시대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계들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그 정보를 활용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야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브루타를 이론화한 엘리 홀저는 자신과의 관계, 짝과의 관계,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브루타는 관계 속에서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줄이고 교육의 현장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짝과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자신 또한 짝과의 관계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레비나스는 “일정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은 그 자체가 지닌 실체에 관한 특징들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일체, 다자적인 결합방식 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철학에 대한 이해는 존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로 아나가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하브루타 방식으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내가, 짝이, 텍스트가 관계를 맺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고 정보를 활용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이 길러집니다. 사고력과 문제해결력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릴때부터 부모와 짝이 되어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주고 받는 대화속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배려와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텍스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책 하브루타를 하는 텍스트로서의 그림책은 명령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읽혀지면서도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책입니다. 글과 그림으로 되어 있기에 어린 독자들보다 상호작용이 용이합니다. 생각하는 습관과 함께 책과 짝과 관계맺는 법도 길러주기에 그림책을 사용해 하브루타를 하려 합니다.



2. 하브루타란 무엇인가요?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종교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탈무드와 토라 속의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전통적인 학습방법입니다. 하브루타(Chavruta)는 아람어로 ‘우정’, ‘친구’, ‘동반자 관계’를 뜻하는 ‘하베르(Chaver)’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는 ‘강론(講論)’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론은 사전적 의미로 ‘학술이나 도의(道義)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바울도 강론하시던 장면이 성경에 여러번 나옵니다. 하브루타는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대화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 논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짝을 이루는 이들은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움과 깨달음을 얻는 학생이 되기도 하며 상호적 관계를 형성해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에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문적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에 하브루타를 소개한 전성수는 하브루타를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브루타란 무엇인가?>의 저자 엘리 홀저(Elie Holzer)와 오릿 켄트(Orit Kent)는 하브루타 본문학습을 두 학습 짝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 그리고 짝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대화형 학습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하브루타란 두 사람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림책 하브루타의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책을 읽고 궁금증과 생각을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대부분의 대화가 질문과 해답으로 이루어지기에 질문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질문 이면의 생각들이 서로를 이끌어 갑니다. 한스-게오르그 가다머는 “질문을 이해하면 질문을 한다. 질문을 결정하는 것이 지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지 풀듯이 질문에 대답만 하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해답 이면의 이유들을 서로 나누는 관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질문의 예로 “왜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보충해주며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게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방법 중 거시적 방법으로는 평상시 모든 영역에 지적호기심을 살려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질문이 생활화되면 많은 것들이 달리보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시적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을 넣어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을 넣어 질문을 하면 생각하게 하는 열린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주인공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브루타는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하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매거진에는 실제 그림책으로 하브루타를 할 수 있도록 워크지와 가이드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림책 하브루타를 통해 관계형성의 정서적 측면과 사고형성의 인지적인 측면을 모두 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달의 신간그림책

임해영 (그림책박물관 운영자)



한울림어린이, 2021

눈부신 빛의 풍경을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이 책의 주인공 아빠와 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딸은 조금은 볼 수 있고, 아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넓고 흥미로운 세상을 봅니다. 아빠에게 딸은 길잡이별이 되고, 딸에게 아빠는 수호천사가 되어 날마다 아빠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갑니다. 집에서 학교에 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부녀의 등갓길은 신나는 놀이이자 모험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빛과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숲을 지나고, 동물들 이름을 알아맞히고, 징검다리를 한 발 한 발 밟으며 안개가 자욱한 강을 건넌다.

딸은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길을 걷다 옆을 스쳐 간 사람의 슬픔을 알아채고, 다가오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아빠가 너무나도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언제나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아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요. 드디어 학교에 다다라 아빠 손을 놓아야 할 때면 딸은 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꼭 참지요. 혼자 돌아서는 아빠의 모습은 슬퍼 보이지만 다섯 시간 뒤면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사랑과 신뢰는 하루 아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 갑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신뢰가 견고해질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용기있고 아름답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날아 오르는 그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흰 지팡이와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호천사가 되어주시는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상상의집, 2021

크기도 작고 간결한 만화체의 동물캐릭터가 눈길을 끄는 그림책입니다. 힘을 뺀 그림이지만 촌스럽거나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탄탄한 구성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가 스미쿠라 토모코는 1968년생으로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나 네 아이를 키웠습니다. 돌봄복지사로 일하면서 읽어 주기 봉사 활동을 하며, 그림책 아카데미에서 그림책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읽어 주기 쉬운 그림책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안돼, 안돼! 아이스크림>과 <안돼, 안돼! 오이>는 작가의 바람대로 4~5세의 어린 유아들에게 읽어주기 아주 쉬운 그림책입니다. 요즘 그림책의 흐름이 너무 가벼운 재미 또는 동의하기 어려운 작가의 철학으로 안내하는 그림책들이 많다보니 오히려 스미쿠라 토모코의 명료한 주제와 이야기가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

에 배려, 나눔, 책임감, 우정, 용기 등 어린이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교훈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게 녹아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아이스크림>은 돼지가 악어에게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잠시 맡깁니다. 돼지를 기다리며 악어의 눈길은 자꾸만 아이스크림에게 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스크림은 천천히 녹아갑니다. 한입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안돼, 안돼! 갈등하는 악어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겹치며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쯤 악어의 입이 점점 벌어지는 그때,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툭 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한참만에 돌아온 돼지의 눈이 왕방울처럼 커집니다. 악어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막대에 보너스 두개를 알리는 별표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 자리에서 악어의 손을 붙잡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달립니다. “아주머니! 당첨됐어요. 두개 주세요!” 길가에 앉아 돼지와 악어는 사이좋게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친구가 맡긴 아이스크림은 녹아가고 있는데 친구는 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할까요? 수준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이렇게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씩 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의 기준이 자꾸만 내려가고 너의 마음이 이끄는대로 하라고 부추기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주체자가 되라고 격려해 주는 그림책이 참 반갑습니다.



BASIC

그림책으로 생명을 살리는 매거진